

아르헨티나, 사과산업 동향

아르헨티나에서 과일산업은 국가 경제는 물론 수출산업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과일수출액은 7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사과와 배는 생산액의 50% 정도가 수출되고, 나머지 50%는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소비된다.

국가 전체적으로 사과 재배면적은 48,000ha, 배 재배면적은 23,000ha 등이다. 사과 재배면적은 1982년 이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배 재배면적은 연 평균 2%씩 증가한다(1982년 16,000ha에서 2004년 23,000ha로 증가).

사과와 배 생산의 99%, 물량으로는 백만톤에 달하는 양이 리오네그로(Rio Negro)와 네퀸(Neuquen) 지역의 리오네그로 밸리와 멘도사(Mendoza) 지역의 우코 밸리에서 생산된다. 이중 최대 산지는 리오네그로와 네퀸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는 네퀸강과 리메이(Limay)강의 물을 관개하여 사과농사를 짓는다. 이 지역은 아르헨티나 사과, 배 재배면적의 90%를 점하고, 생산의 85%를 차지한다. 두 번째 사과, 배 주산지는 멘도사지역의 우코밸리로서 재배면적의 24%, 생산량의 14%를 점한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에서 제1위의 과일 생산국이었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해외, 특히 북반구로 수출되었다. 남반구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북반구와의 정반대 계절의 잇점을 살려 북반구 지역에 양질의 과일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에서 제1위의 생산국의 위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 이유는 사과에 대한 세계수요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품종 개량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일산업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투자부진은 아르헨티나 과일산업의 기술을 정체상태로 만들었음은 물론, 칠레와 같은 인근 국가들에게 사과수출시장을 내주게 되었다.

현재 세계 사과시장에서 아르헨티나는 그 위치를 회복하는 중에 있다. 2002년 1월 태환제 폐지와 같은 거시경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과일생산과 수출 투자를 재개하였다. 과일산업, 그중에서도 사과생산 부문은 기술혁신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민간과 공공부문은 아르헨티나가 남반구에서 제1의 과일생산국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아르헨티나의 사과생산

1.1. 재배면적

아르헨티나는 약 48,000ha의 재배면적에 백만톤의 사과를 생산하여 세계 10위의 사과생산국이다. 사과주산지는 리오네그로(Rio Negro)와 네켄(Neuquen) 지역의 리오네그로 밸리와 멘도사(Mendoza)지역의 우코 밸리로서, 리오네그로 밸리에서는 아르헨티나 사과의 85%가, 그리고 우코밸리에서는 14%가 생산된다. 그밖의 사과주산지는 산주안(San Juan) 지역과 팜파 지역의 25 de Mayo 지역이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아르헨티나의 사과재배면적은 계속해서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1992년까지는 11%가 감소하였다. 그 이후에는 1998/99년 71,000ha에 이를 정도로 사과재배면적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02년 아르헨티나 통계청의 공식적인 조사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사과 재배면적은 48,000ha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재배면적을 보면 리오네그로 지역이 최대 주산지로, 29,000ha의 면적에 사과가 재배된다. 그 다음은 네퀸지역으로 12,000ha의 면적에 사과가 생산된다. 제3위의 사과생산지는 멘도사 지역으로 7,000ha의 사과 과수원이 있다.

1.2. 생산

지난 40년간 아르헨티나 사과생산은 연평균 6%의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1990~2000년간은 연평균 3%씩 감소하였다. 1990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사과 생산 증가율의 둔화는 파타고닉(Patagonic) 밸리에서 사과재배면적이 배재배로 전환되고, 배에 대한 시장위생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지역별 아르헨티나의 사과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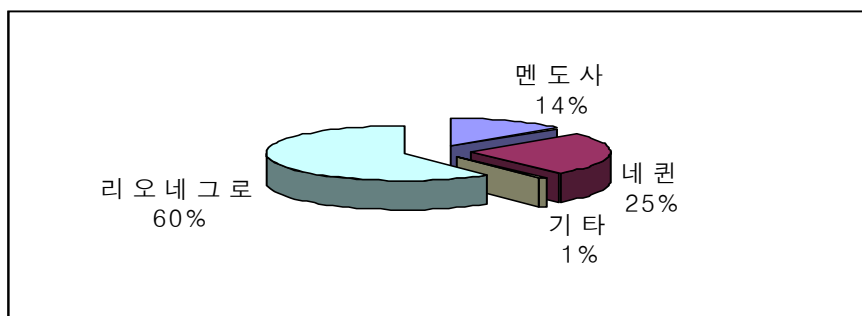


표 1 아르헨티나 사과생산 증가율, 1961~2001년

연도별	생산량(천 톤)	연평균 성장률
1961	415	6%
1971	423	
1981	908	
1991	977	
2001	1,327	

연도별 사과생산량을 보면 연도별로 기복이 심하다. 이와 같은 연도별 사과생산량의 심한 변동은 주로 사과생산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조건 변화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1991년, 1993년, 2000년, 2002년은 냉해, 해일, 가뭄 등과 같은 기상조건이 불리하여 사과생산이 급감한 해이다.

표 2 지역별 아르헨티나 사과생산량, 1990~2002년

단위 : 천톤

연도별	리오 네그로	네쾰	멘도사	기타지역	계
1990	738.7	182.0	177.0	17.4	1,115.1
1991	636.8	184.7	153.8	1.7	976.9
1992	739.7	188.0	100.0	14.0	1,041.7
1993	637.0	161.0	145.9	8.0	951.9
1994	703.3	145.0	148.0	10.1	1,006.4
1995	805.0	175.0	156.0	10.0	1,146.0
1996	972.1	188.9	128.5	10.0	1,299.5
1997	965.6	185.3	230.0	10.0	1,390.9
1998	833.7	187.4	77.3	10.0	1,108.3
1999	919.1	202.2	184.7	10.0	1,316.0
2000	587.4	129.2	122.5	8.0	847.1
2001	936.5	206.4	174.6	10.0	1,327.4
2002	614.7	171.6	98.4	9.0	893.7
2003	620.9	173.5	135.8	10.0	940.1

지난 수년간 아르헨티나의 사과생산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사과나무 식재는 밀식재배와 함께 현대적인 재배체계로 변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혁신은 아직도 초보단계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사과 식재밀도는 ha당 500주인데 목표는 이보다 4~5배가 많은 ha당 1,500~2,000주이다. 이를 위해 줄을 이용하여 사과나무를 지지하는 과수지주 기술을 보급중에 있다. 이 기술은 사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확개시 시기를 앞당긴다.

아르헨티나 사과나무의 절반 이상은 수령이 15년이다. 이 때문에 ha당 사과 수량이 28톤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ha당 적정 사과 수량은 40~50톤

이다. 사과품종 갱신율은 겨우 2%에 불과한 상태에서 대부분이 레드딜리 셔스, 그라니스미스, 로얄갈라와 같은 재래품종이다. 세계시장의 수요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품종이 완만하게나마 도입 중에 있다.

1.3. 수확

아르헨티나의 사과 수확기는 1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이다. 중부밸리 사과가 제일 먼저 시장에 출하되고, 그 다음이 하이밸리, 우코 밸리산 사과가 출하된다. 아르헨티나의 사과수확시기는 농식품품질관리청(National Service of Agrifood Health and Quality)이 공식적으로 정한다.

아래 표는 품종별 수확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먼저 생산되는 지역은 리오네그로 밸리로서 동부에 위치한 이 지역 사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먼저 익기 때문이다. 가장 늦게 수확되는 지역은 우코밸리이다.

2. 사과의 유통체계

2.1. 생산단계

사과생산은 리오네그로밸리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생산단계에만 생산자, 계절노동자, 기술지원요원, 농자재 공급자 등 41,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생산단계에서는 사과생산농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48,000ha에 달하는 과일재배면적에 6,000명의 생산농민이 있다. 생산농민중 80% 이상은 20ha 이하의 사과 과수원을 가지고 있다. 과일재배면적의 절반 정도는 배 과수원이다.

과수농가에는 포장 및 가공단계와 분리된 독립농가, 포장 및 가공단계와 결합된 통합농가(integrated farmers), 유통까지 담당하는 회사농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전체 과일 농가의 50%를 차지하는 독립농가는 단지 생산에

만 전념한다. 독립농가의 주요 특징으로는 자본 부족, 가족농, 재래농법, 고비용구조, 품질이 낮은 과일생산, 개별 유통 등이다.

통합농은 전체 과일농가의 30%를 차지하는데 자신이 생산한 과일을 포장하고 가공하기 때문에 강한 협상력을 가진다. 나머지 20%는 회사농으로서 가장 최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과일농사를 짓고, 시장판매도 담당한다. 보통 이들 회사농들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자본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과일농가들은 자신들의 과일을 판매할 포장시설을 직접 선택한다. 유통 및 가공회사와 연계된 수직통합의 사례는 드문 편이다. 그러나 포장회사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수평적 통합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격이 고정된 경우 농가와 포장 및 가공회사간의 과일 판매와 구매는 무게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흔한 거래 형태는 서면계약이다. 생산자가 계약에 따라 과일을 납품하면 수확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비용만 변제 받고, 나머지는 그 다음 계절에 받는다.

생산자에게 지불되는 가격은 연도별로 차이가 심한 편이다. 예를 들면 서리피해로 50%의 감산이 있던 2000년에는 가공용 과일에 대해 50% 나 높은 가격이 지불되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가공용 과일이 신선과일에 비해 낮은 가격이 지불된다. 지난 10년간 kg당 신선사과는 6센트(한화로 약 70원), 가공용 사과는 3센트(한화 기준 약 35원)가 지불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가공회사와 생산농가간 계약생산이 대두되는 추세이다. 대규모 포장회사와 유통업자들은 물량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계약을 맺고 기술과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생산농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2.2. 포장 및 저온저장

이 단계에는 약 500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 400개는 포장 및 도매상이고, 47개는 수출업체, 14개는 농축주스 생산과 같은 가공회사이다. 포장 단계에서는 저온저장전에 과일을 선별하고, 박스에 담는다. 보통 포장업자들은 사과를 선별하고 판매처와 판매시기를 결정한다. 또한 그들은 포장된 과일의 저온저장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서는 여러 형태의 회사가 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가공업과 도매업을 병행하는 회사가 주종을 이루고 유통만을 담당하는 회사는 드물다. 통상적으로 한 회사가 포장, 저장, 판매까지 담당한다.

아르헨티나에는 약 400개의 포장시설이 있는데 그 중 60%는 연간 처리 능력이 50,000박스 미만이다. 지난 15년간 하이밸리에서 처리된 물량은 약 477,000톤으로 2,300만 박스에 해당한다. 포장시설 중 15%는 생산-포장-저온저장-수출의 연결고리와 완전히 통합된 회사들이다.

독립된 냉장시설은 드문 편이다. 거의 모든 포장회사들은 저온저장 시설을 보유한다. 저온저장을 통해 북반구와의 계절적인 차이를 이용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약 200여 개의 저온저장시설이 있는데 저장 능력은 260만 m³이다.

2.3. 가공

아르헨티나 사과의 절반 이상은 농축주스, 사이다, 건과일, 잼, 젤리 등의 형태로 가공된다. 이와 같은 가공용 과일은 생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품질이 낮은 게 보통이다. 농축주스 비중은 전체 가공과일 중 80%이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에서 제1위의 농축주스 수출국이면서 세계 3위의 생산국이면서 수출국이다. 아르헨티나가 세계 농축주스 생산 및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 11%이다.

지난 20년간 아르헨티나의 농축주스 생산량은 50% 가까이 증가하여 2003년의 경우 66,000톤을 생산하였다. 이와 같은 농축주스의 성장은 국제 시장에서 수요증대는 물론 파타고니아에 위치한 회사들의 관측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아르헨티나에는 모두 14개의 주스공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연간 생산량이 10만 톤 이하인 중소규모이다.

농축주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는 당도가 70~71°인 주스로서 주로 콜라의 감미재료로 쓰인다. 다른 종류는 당도가 60°인 주스로 주스와 넥타를 만드는데 이용된다. 통상적으로 6.7kg의 과일에서 1kg의 주스를 얻는다.

주스공장은 1,000~1,100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한다. 일부 가공회사는 협동조합 또는 포장회사와 수직통합된 형태를 띠기도 한다.

2.4. 수송

생산 및 유통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수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가에서 생산된 과일을 가공시설까지, 또는 가공회사로부터 시장까지 수송이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과수원에서 가공시설까지 근거리이기 때문에 냉장시설이 없는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르헨티나 국내 시장 또는 브라질로 향하는 과일은 주로 트럭으로 운반된다. 국내시장으로 트럭을 이용하여 과일을 운반하는 경우 온도를 조절한다. 각 트럭은 1,000박스 정도를 싣는데 저온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트럭은 거의 없다.

브라질로 과일을 운반하는 트럭은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트럭당 1,200박스를 싣을 수 있을 만큼 대형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로 향하는 운송서비스는 주로 브라질운송회사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과일은 주로 선박을 이용해 수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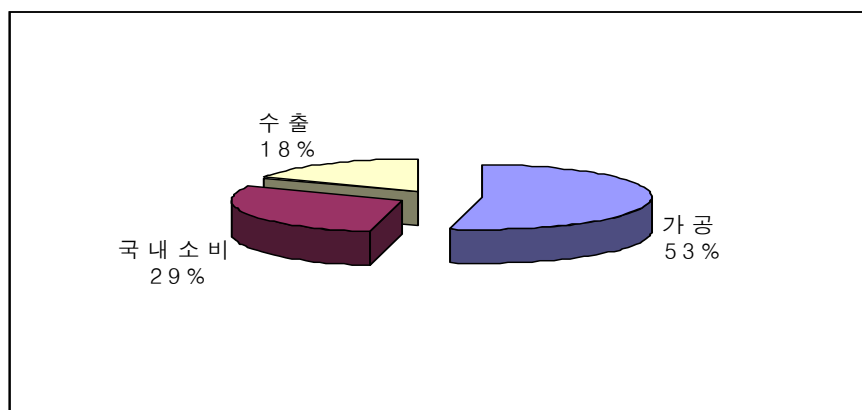
2.5. 사과소비

지난 수십간 사과의 쓰임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에는 가공용으로 30% 정도만 소비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국내외 시장에서 신선과일 형태로의 소비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해외수출이 부진해지자 가공용 소비가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까지 이어져 생산된 사과의 50%가 가공용으로 소비되고, 30%는 아르헨티나 국내시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20%는 해외시장에서 신선형태로 소비된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남반구 사과수출 1위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사과의 품질의 저하로 인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상실하였다. 반면 칠레는 사과의 세계시장점유율 확대 정책, 즉 수출촉진정책을 펼쳐 결국 아르헨티나의 세계시장점유율을 더욱 하락시켰다.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는 품질이 서로 다르다. 그 이유는 생산자들이 가격 및 재고, 그리고 품질을 고려하여 판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2 아르헨티나 사과의 소비구성, 1990~2003년



주산지별 사과와의 판로를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코밸리에서는 주로 내수용 사과를 생산한다. 지난 15년간 전체 생산된 사과 중 수출비중은 5.8%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 리오네그로밸리에서는 시장전략, 마케팅 및 비용 등의 요인때문에 멘도사지역보다 더 오래된 수출역사를 지닌다. 특히 이 지역은 멘도사 지역에 비해 항구에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수송비가 저렴한 잇점이 있다.

2.5.1. 국내시장

아르헨티나 국민 1인당 연간 사과소비량은 10kg 정도로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 1인당 소비량에 차이가 큰 편이다. 리오네그로 밸리에서는 1인당 사과소비량이 20kg이 넘지만 브에노스아이레스와 교외지역에서는 12kg 정도이다. 멘도사 지역은 아르헨티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1인당 연간 사과소비량이 2kg 이하이다.

아르헨티나의 과일 및 채소도매업체는 약 5,000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금액으로는 15억달러, 물량으로는 500만톤의 과일과 채소를 취급한다. 이들이 영업을 하는 장소는 주로 집하시장(concentrating market) 또는 도매시장이다.

아르헨티나 국내에는 주요 도시근처에 위치한 40개의 집하시장이 있다.

- 브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집하시장: 연간 150만톤 취급
- 코도바(Cordoba) 시의 아바스토(Abasto) 시장: 연간 40만톤 취급
- 멘도사 지역의 과이말렌 협동조합시장: 연간 35만톤 취급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20%는 브에노스아이레스의 중앙시장에서 거래된다. 이 시장에서 취급물량이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중앙시장은 과일의 가격책정기능을 담당한다. 사과의 유통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품질, 건강, 색상, 크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슈퍼마켓, 현대식 소매점에 대한 직거래형태이다.

지난 10년간 신선사과의 평균도매가격은 kg당 미달러화로 20센트(한화로 230원)이다. 사과가격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성수기어서 물량이 넘치는 4월경에는 가격이 낮게 형성되다가, 11~12월까지 가격이 서서히 상승한다. 농축주스는 농축주스를 희석하거나 음료수에 감미재료로 이용하는 지방의 음료생산자에게 판매된다. 주스 및 비알콜음료에 대한 소비자 기호가 변함에 따라 주스와 비알콜음료시장은 통합되는 추세이다.

2.5.2.세계시장

2003년 아르헨티나는 물량으로 연간 20만톤, 금액으로 8,000만달러에 달하는 사과를 수출하였다. 러시아가 주요수출시장이 되기 전인 2003년까지 브라질이 아르헨티나 사과수출의 주요 시장이었다. 2003년 아르헨티나 사과 수출의 53%는 유럽연합국가들에게 판매되었다. 유럽에서 사과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아르헨티나가 유럽에서 사과수출점 유율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요구하는 법적, 상업적 요구조건에 맞추어야 한다.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산 사과수입을 줄임에 따라 러시아가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대두되었다.

표 3 연도별 아르헨티나의 사과 수출 실적

연도별	물량(천톤)	금액(천달러)
1993	145.5	73.7
1994	143.7	69.2
1995	243.3	137.1
1996	209.5	126.0
1997	229.9	129.1
1998	227.8	118.3
1999	182.1	95.7
2000	95.7	54.1
2001	193.8	96.6
2002	165.5	63.0
2003	195.6	79.9

표 4 주요 시장별 아르헨티나의 사과 수출 실적, 2002, 2003년

국가별	2002			2003		
	물량 (천톤)	%	금액 (천달러)	물량(톤)	%	금액 (천달러)
러시아	34.0	21	12.6	52.8	27	20.6
벨기에	22.0	13	9.2	31.1	16	13.1
네덜란드	25.0	15	9.9	30.2	15	12.8
브라질	39.0	24	13.6	23.3	12	9.1
스페인	8.0	5	3.1	10.7	5	4.5
스웨덴	5.0	3	1.9	9.9	5	4.1
노르웨이	9.0	6	3.5	9.8	5	3.9
포르투갈	9.0	5	3.4	7.2	4	2.9
이탈리아	-	-	-	5.7	3	2.6
미국	2.0	1	0.9	4.7	2	2.3
기타	13.0	7	4.7	10.3	5	4.1

수출품종을 보면 브래번(Braeburn)은 갈라, 핑크레이디, 로마뷰티, 그라니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주로 유럽으로 수출된다. 후지품종은 유럽, 아시아, 미국 등지로 수출된다. 레드딜리셔스는 브라질, 유럽, 러시아 등지로 수출된다. 수출품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종은 레드딜리셔스로 전체 수출물량의 59%를 점한다. 그 뒤는 그라니스미스(25%), 갈라(1%)가 잇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주로 수출하는 사과품종은 레드딜리셔스, 그라니스미스, 갈라 등이다. 품종갱신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아르헨티나 사과의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409달러였다. 브라질에 대한 수출가격은 인하되는 추세이다. 과거 수년간 브라질에 수출되는 사과의 수출가격은 톤당 420달러였지만, 2003년에는 2002년보다 약간 높은 가격대인 393달러였다. 수출업체의 집중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1개 수출업체가 전체 사과, 배수출의 27%를 차지한다. 또한 상위 5개 수출업체가 전체 사과, 배 수출의 70%를 점할 만큼 집중화가 진전되어 있다.

표 5 아르헨티나 사과, 배의 수출회사별 수출 실적, 2003년

회사명	수출팔레트 갯수(천개)	물량(천톤)	비율(%)
EXPORT SA	114.1	119.1	27
PAT. FRUITS TRADE SA	49.2	55.5	13
PAI SA	46.9	52.9	12
MO AZUL SA	33.7	38.2	9
ECOFRUT SA	30.3	33.5	8
Others	125.1	142.1	31
계	399.3	441.4	100

일반적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과는 San Antonio Esto 항구에서 선적되지만 브라질로 행하는 사과는 Foz de Iguazu 항구에서 선적된다. 이중 San Antonio Esto 항구는 사과 주산지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과 수출전문 항구로 발전하였다. 항구에서 선적작업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사과수송을 위해 3~4월을 정점으로 하여 6월까지 계속된다.

아르헨티나는 칠레를 제치고 남반구에서 제1위의 농축주스 수출국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농축주스의 95%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농축주스의 30%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농축주스 수출은 미국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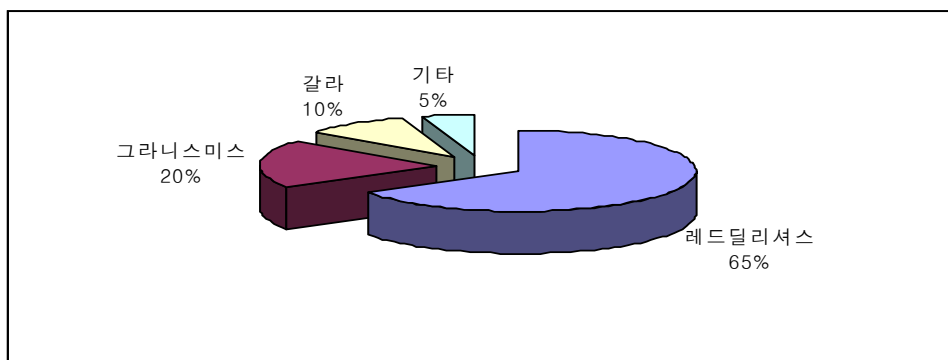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아르헨티나 농축주스의 수출확대 가능성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은 미국에 43만톤의 농축주스를 수출하여 미국의 농축주스 소비량의 20%를 공급하는 국가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농축주스는 아르헨티나산에 비해 품질이 낮은 편이다.

3. 품종분포

2002년 사과의 종묘 판매는 증가하였다. 판매된 품종중 90%는 갈라였다. 2003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갈라 품종 판매량이 40%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 다음은 레드딜리셔스와 그라니스미스가 그 뒤를 잇는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에서는 갈라, 레드딜리셔스, 그라니스미스와 같은 품종들의 재배가 빠르게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품종별 재배비중을 보면 아직도 레드딜리셔스와 그라니스미스가 주종을 이룬다. 2003년의 경우 전체 생산량중 레드딜리셔스가 66.1%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다음은 그라니스미스(19.5%), 갈라(9.8) 등이다. 이들 세 품종이 전체 사과생산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그 밖에 핑크레이디(1.0%), 골든딜리셔스(0.8%), 후지(0.6%), 브래번(0.5%) 등이 재배된다.

그림 3 품종별 생산비중, 2003년



(권오복 obkwon@krei.re.kr 02-3299-42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